[프리뷰] 실리 챙긴 전북, 이제 연승이다

서울 원정에서 2-0 승리와 함께 체력 안배에 성공한 전북
연승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대구를 상대로 연승에 시동건다

▶ 관련기사 3면

[레전드열전] 보띠

약관의 나이에 조국 브라질을 떠나 전북에 입단한 보띠
10번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성장스토리를 완성하다

▶ 관련기사 8면

TODAY MATCH

전 북 VS 대 구

KICK OFF 19:00

전북현대모터스FC 공식 매치데이 매거진

THE DAKGONG

발행_전북현대모터스FC(주) | 제작_누비온협동조합 | 편집장_김진규 | JB

2018년 8월 22일(수) | VOL.55 | ₩1,000



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통산 3회 우승에 도전하는 전북,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이제 아시아의 역사다 ▶ 관련기사 6면

PUB

사전 예매 혜택 안내

INTERPARK

01 원하는 좌석 선점 가능

02 가격 할인
- 성인VIP석 5,000원 할인
- 성인일반 2,000원 할인

03 빠른입장 가능
- 지정좌석제로 인해 매표소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 예매를 통해 빠르게 입장하세요!

※ 사전 티켓 예매 할인 가격은 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EB 하나은행 K LEAGUE 1 2018 ROUND 25

전북현대
18승 2무 4패 48득점 19실점 1위

K LEAGUE 1 CHAMPION 5 0
AFC CHAMPIONS LEAGUE CHAMPION 2 0
FA CUP CHAMPION 3 0

대구FC
6승 5무 13패 13득점 22실점 10위

전북현대 예상 라인업



대구FC 예상 라인업



K리그1 2018 24라운드 현재 순위

	구단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 전북	56	18	2	4	48	19
2	- 경남	46	13	7	4	41	24
3	↑ 울산	39	10	9	5	32	26
4	↓ 수원	36	10	6	8	39	34
5	↑ 강원	33	9	6	9	42	40
6	↓ 포항	33	9	6	9	29	29
7	↓ 서울	32	8	8	8	30	28
8	- 제주	31	8	7	9	28	29
9	- 상주	28	7	7	10	24	26
10	- 대구	23	6	5	13	22	41
11	↑ 전남	19	4	7	13	27	46
12	↓ 인천	17	3	8	13	33	53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 AFC 챔피언스리그 PO / K리그 승강 PO / K리그 2 강등

전북현대 최근 5경기 결과

L	L	W	L	W
0:1	1:2	3:1	2:5	2:0
K리그1 경남 2018/08/05	FA컵 아산 2018/08/08	K리그1 강원 2018/08/11	K리그1 포항 2018/08/15	K리그1 서울 2018/08/19

대구FC 최근 5경기 결과

W	W	W	W	L
3:1	8:0	2:1	3:2	0:2
K리그1 강원 2018/08/05	FA컵 양평 2018/07/18	K리그1 인천 2018/08/11	K리그1 제주 2018/08/15	K리그1 울산 2018/08/18

전북현대 주요 선수



no.20 이동국
K리그 통산 기록: 491경기 209골 74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22경기 7골 3도움



no.9 김신욱
K리그 통산 기록: 320경기 120골 27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20경기 8골 2도움



no.10 로페즈
K리그 통산 기록: 110경기 34골 24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20경기 6골 4도움

숫자로 보는 관전포인트

2 대구전 최근 2연승

5 5경기만의 무실점 승리

8 대구전 최근 8경기 무패

대구FC 주요 선수



no.11 세징야
K리그 통산 기록: 77경기 19골 21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14경기 1골 6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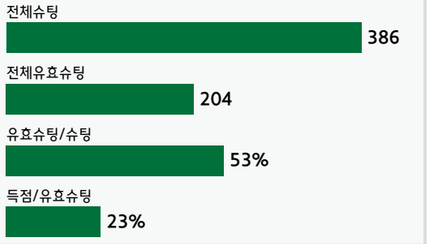


no.5 홍정운
K리그 통산 기록: 49경기 3골 2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23경기 3골 2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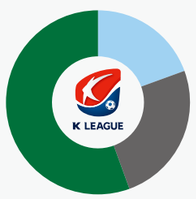


no.20 황순민
K리그 통산 기록: 131경기 13골 11도움
2018년 K리그 기록: 23경기 1골 3도움

전북현대 슈팅 및 득점 기록



K리그 통산 상대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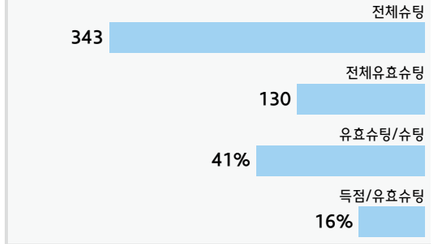
총 36경기
(K리그1 7경기 5승 2무 0패)

WIN	DRAW	LOSE
20 (55.6%)	9 (25.0%)	7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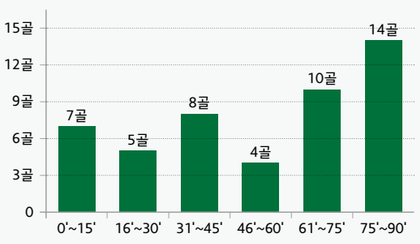
최근 5경기 맞대결 결과

17/05/06	대구 0:2 전북
17/06/25	전북 2:2 대구
17/09/24	전북 1:1 대구
18/05/02	전북 2:1 대구
18/07/29	대구 1:3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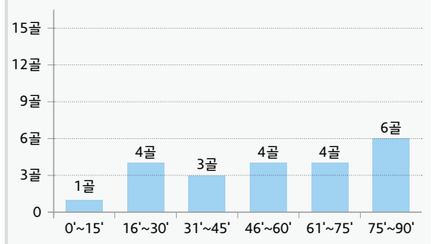
대구FC 슈팅 및 득점 기록



전북현대 시간대별 득점 분포도



대구FC 시간대별 득점 분포도





사진_구단공식

결과와 실리 챙긴 전북, 이제는 연승이다

**서울 원정에서 2-0 완승과 함께 로테이션을 위한 체력 안배에 성공한 전북
연승행진이 끊긴 대구를 상대로 전주성에서 K리그1 연승에 다시 시동을 건다**

강팀에게 연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전북, 이제 강팀에게는 연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차례다.

전북 현대는 11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를 상대로 'KEB 하나은행 K리그1 2018' 2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서울 원정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세를 홈팬과 함께 연승의 오오렐레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남전 패배로 연승행진이 중단된 이후 전북은 좀처럼 연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강행군속 원정경기가 체력적인 부담을 가중시킨 탓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랜만에 연승을 기록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최강희 감독이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하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번 대구전은 지난 서울전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의 활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국과 아드리아노는 그 선봉장이다. 8월 들어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막혀 좀처럼 득점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이동국과 아드리아노는 조현우가 빠진 대구의 골문을 정 조준하고 있다.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5경기만에 무실점을 기록한 수비진은 최철순과 신형민의 복귀로 무게감이 한 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한편 대구는 K리그1 3연승을 포함 공식경기 4연승 행진이 지난 울산전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뒷공간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은 위협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결정력이 약점으로 지목된다.

끝없이 이어지는 강행군의 유일한 안식처 전주성. 연승을 이끄는 힘은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다.



사진_구단공식

아시안게임에 골키퍼를 내준 양팀, 결과는?

전북과 대구는 지난 18일 열전에 돌입한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주전 골키퍼를 대표팀에 내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전북이 더 큰 모습이다. 송범근과 함께 김민재, 장윤호 세 명의 선수가 차출되면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후반기 5연승을 달리던 전북은 아시안게임 차출 이후 5경기에서 2승 3패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구는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들어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K리그1 3연승으로 강등권과 격차를 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FA컵 16강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다골인 8골을 몰아넣으며 가볍게 8강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24라운드에서 분위기는 반전을 이뤘다. 강력한 대인방어와 전방압박으로 황병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성공한 전북과 달리 대구는 결정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울산에게 패했다.

주전 골키퍼 이탈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지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과 대구.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은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경기 뜻밖의(?) 명승부

대구전 영상 실록



2-2 D (2017.06.25. 전주)
김민재의 천금같은 동점골로 승점 1점을 확보했다.



1-1 D (2017.09.24. 전주)
이승기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2-1 W (2018.05.02. 전주)
전반 초반 로페즈의 원맨쇼와 임선영의 추가골로 2-1 승리했다.



3-1 W (2018.07.29. 대구)
임선영, 김신욱, 한교원의 연속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사진_중계영상

KEB 하나은행 K LEAGUE 1 2018 ROUND 24

2018년 8월 19(일) 19:00 서울

FC 서울		전북 현대
0	0 전반 1	2
	0 후반 1	

31' 최보경
79' 손준호

서울 / 전북 — 15' 30' 45' 60' 75' 90'

주 심	부 심	대 기 심	경기감독관	Man of the Match	관 중
김 희 곤	윤 광 열 / 김 지 욱	김 덕 철	김 형 남	손 준 호	18,957명



선발명단		선발명단	
21	양 한 빈	21	황 병 근
4	김 동 우	19	박 원 재 84'
40	김 원 균 85'	6	최 보 경 31'
50	박 동 진	26	홍 정 호
18	윤 석 영	2	이 용
24	정 현 철	28	손 준 호 79'
8	신 진 호 45'	8	정 혁
32	조 영 욱	10	로 페 즈 73'
7	이 상 호	5	임 선 영
13	고 요 한	7	한 교 원 64' 38'
99	마 티 치 59'	9	김 신 욱 31'

교체명단		교체명단	
30	정 진 욱	1	홍 정 남
3	이 용 희	16	조 성 환
19	심 상 민	33	박 원 재
15	김 원 식	4	신 형 민
72	정 원 진 45' 71'	14	이 승 기 64'
22	윤 승 원 71'	32	아드리아노
11	에 반 드 로 59'	20	이 동 국
감 독	이 을 용	감 독	최 강 희

서울		전북
56.4%	점 유 율	44.6%
3	슈 팅	14
2	유효슈팅	10
12	파 울	20
1	경 고	2
0	퇴 장	0
4	코 너 킥	8
22	프 리 킥	14
2	오프사이드	2

전반 31' 최보경(0-1)



후반 34' 손준호(0-2)




사진_김오정

최보경 결승골! 올 시즌 서울전 3전 전승

**전반 31분 VAR 끝에 인정받은 최보경의 선제골과 손준호의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
2-0 완승으로 23라운드 패배의 충격 극복하고 올 시즌 서울전 3전 전승 달성**

올 시즌 첫 번째 전북의 3전 전승 상대는 서울이었다.

전북 현대는 19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1 2018' 24라운드 경기에서 최보경과 손준호의 연속골로 3연승을 달리고 있던 서울을 2-0으로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이날 승리로 전북은 올 시즌 서울전 3전 전승을 달성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서울의 기습적인 공격에 골대를 강타당한 전북은 곧바로 로페즈가 하프라인에서부터 단독돌파한 후 서울의 골대를 강타하며 응수했다.

공방전이 예고되던 경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북의 흐름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이어가던 전북은 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신욱이 머리로 떨궈준 볼을 최보경이 밀어넣으며 선취골을 기록했다. VAR 판독 결과 완벽한 온사이드였다.

1-0으로 앞선 채 후반전에 돌입한 전북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하프라인부터 강력한 압박으로 서울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로페즈를 앞세운 측면 공략으로 추가골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후반 34분 손준호가 로페즈의 패스를 받아 골문 구석을 찌르는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손준호의 슈팅 만큼이나 서울의 공격을 끊어낸 임선영, 로페즈, 김신욱의 집중력이 빛난 장면이었다.

이후 안정적으로 서울의 공격을 차단해낸 전북은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5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기록, 경남과의 승점 차를 두 자릿수로 유지했다.

K리그1 2018 24라운드
서울전 주요장면



2' 로페즈가 단독 돌파 후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31' VAR 끝에 최보경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1-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79' 손준 호우~ 손준호가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 후 호우 세레머니로 원정석을 달궜다.



경기종료 후 최보경과 3,000여 전북 원정팬들이 함께 승리에 취했다.

사진_SPOTV 중계화면


사진_대한축구협회

최강희 감독, "우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오늘 같은 집중력이면 우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최강희 감독은 서울전 직후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했고, 수비 밸런스와 세컨드 볼 싸움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며 "오늘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면 우리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최근 전북은 계속되는 강행군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 완승으로 마무리된 서울 원정 역시 쉬운 경기가 아니었다.

이에 최강희 감독은 "분명히 어려운 원정경기를 예상했다."며 "수요일-토요일 경기를 잘 치르고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강행군 속에서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로테이션에 대한 염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이날 선수 교체를 한 번만 진행한 최강희 감독은 "이기고 있었고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교체를 안했고, 다른 경기 준비를 위한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고누적과 부상의 변수가 있지만, 상주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뒀고 과부하가 걸린 수비쪽을 더욱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8/08/22 VOL.55
THE DAKGONG

WE MAKE ASIAN HISTORY

아시아축구연맹(AFC)은 AFC 챔피언스리그 8강 공식 프로그램에서 전북 현대를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 중 하나(one of the most successful in recent times in Asia)'라고 평가했다. 그렇다. 이제 아시아도 명실상부 '전북 천하' 시대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8번 올라 우승과 준우승 각각 한 차례씩 기록하며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클럽으로 발돋움했다.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횟수, 토너먼트 진출 확률 등 아시아 무대에서 전북의 적수는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다.

전입미답! AFC 챔피언스리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향한 발걸음

2002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한 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올 시즌 전북이 아시아 왕좌에 오른다면, 그것은 곧 AFC 챔피언스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게 된다.

가장 먼저 통산 세 번째 우승에 접근한 팀은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였다. 알 이티하드는 2004년과 2005년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가장 먼저 3회 우승을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9년 결승에서 포항에 패한 이후 좀처럼 4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주도권이 동아시아로 넘어온 가운데 통산 세 번째 우승에 근접한 팀은 지난 3번의 대회에서 우승컵을 나눠 가진 광저우 헝다(중국), 우라와 레드(일본) 그리고 전북 현대가 꼽힌다. 사실상 한·중·일 3국의 자존심 싸움이 된 셈이다.

전북은 아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쓸 기회를 먼저 잡았다. 우라와 레드가 올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광저우 역시 16강에서 텐진에게 발목 잡히며 일찌감치 대회를 접었기 때문이다.

K리그, 더 나아가 한국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전북.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아시아 역사를 향해 나아간다.

수원전 무실점 2연승! 아시아 무대에서도 강세는 계속된다.

AFC 챔피언스리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은 수원과의 8강전이다. 올 시즌 두 번의 수원전에서 무실점으로 2연승을 거두며 '라이벌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4월 29일 전주성에서 펼쳐진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승기와 이동국의 연속골로 2-0 완승을 거뒀다. 경기 내용은 압도했지만, 수원이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11-9 수적 우위에서 경기를 펼쳤던 만큼, 2-0 이라는 스코어는 팬들에게 분명 아쉬움이었다.

그 아쉬움은 두 번째 맞대결에서 털어냈다. 로페즈의 멀티골과 후반 아드리아노의 추가골로 2012년 7월 14일 이후 정확하게 6년 만에 수원 원정에서 3-0 승리를 거두고 2위권과 승점차를 두 자릿수로 벌리는데 성공했다.

이날 승리는 이용의 라디오스타에서 '전북팬부심'을 보여준 직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무려 15대의 버스를 타고 수원 원정길에 오른 전북팬들은 빅버드를 녹색함성으로 뒤덮으며 누가 K리그 최고 인기구단인지 직접 증명해줬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수원전. K리그에서 울린 승리의 오오렐레가 아시아 무대에서도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원에게 우리를 증명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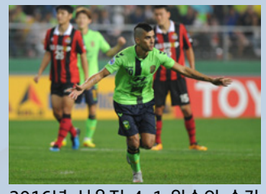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대결

K리그 in ACL

ACL에서 한국팀 상대로 2승 4패의 열세에도 불구, 다음라운드 진출 '66.7%'

전북이 아시아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국팀을 상대한 것은 2006년, 울산과의 4강전이다. 당시 전북은 1차전을 2-3으로 내줬으나, 원정 2차전에서 4-1 완승을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확보. K리그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두 번째 경기는 2014년 16강 포항전이다. 당시 포항만 만나면 유독 작아졌던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차전 홈경기에서 1-2에 이어 2차전에서도 0-1로 패하며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2014년 8월이 되어서야 포항전 악몽에서 벗어났다.



2016년 서울전 4-1 완승의 순간

세 번째 맞대결은 2016년에 있었다. 서울과 자존심을 건 4강 맞대결에서 전북은 전주성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4-1 완승을 거두며 사실상 결승행 티켓을 예약하면서 2차전 1-2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결승에 올라 통산 두 번째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전북은 한국팀을 상대로 한 세 번의 토너먼트 승부에서 2승 4패로 전적에서는 열세를 보였지만, 두 차례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확보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승리는 모두 아시아 왕좌로 이어졌다.

이번 수원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한국전 승리=아시아 챔피언'이라는 공식이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특급 유망주 보띠가 전북에서 써내려간 성장 스토리

2002년 불과 20세의 나이에 브라질을 떠나 지구 반대편 전북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특급 유망주 보띠, 에이스의 상징 '10번'의 가치를 브라질 특유의 테크닉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무대에서 입증하다.


사진_구단공식

두명으론 어림없지! 5년 동안 전북의 10번을 맡은 보띠는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역이었다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서 보띠의 쐐기골은 2차전 원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한 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보띠는 2002년 불과 20세의 나이에 브라질 명문 바스쿠 다 가마를 떠나 전북에 입단했다. 전북팬 입장에서는 최강희 감독 부임 이전의 '옛날 선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만 보면 이동국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다.

보띠가 프로선수로 데뷔한 바스쿠 다 가마는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명문구단으로, 데뷔 첫해부터 20경기를 소화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연 12%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던 당시 브라질의 경제 상황은 전북에게 기회가 됐다.

전북은 이적료 47만달러, 연봉 13만 2천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브라질 무대에서 인정받은 유망주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보띠가 부여받은 등번호는 에이스의 상징 10번이었다.

K리그 데뷔 초기 보띠는 주로 교체로 경기에 나섰다. 기술적인 측면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함께 브라질과 다른 K리그의 경기 스타일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띠가 잠재력을 폭발시킨 것은 2003년 들어서다. 많은 활동량과 함께 화려한 테크닉으로 마그노, 에드밀손(포르투갈 이중국적)과 '삼바 트리오'를 구성하며 맹활약을 펼친 것이다. 그 해 전북은 두 번째 FA컵 우승으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마그노와 에드밀손이 팀을 떠난 이후에도 보띠는 변함없이 전북의 중원을 지켰다. 그렇게 약관의 어린 선수는 명문구단의 도약을 꿈꾸던 전북과 함께 성장했고, 보띠의 성장을 함께 지켜폰 팬들 역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보띠는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선사하며 5년간의 전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결승 1차전에서 터트린 득점은 보띠가 전북에서 기록한 마지막 득점으로 남아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빗셀 고베에서 활약하던 보띠는 2012년 피게이렌스에서 브라질 무대에 10년 만에 복귀했다. 이후 2014년 태국 아르미 유나이티드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6년 은퇴했다.


사진_구단공식

새로운 브라질리언 레전드, 로페즈

전북팬들에게 특히나 멀지만 가까운 나라, 브라질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먼' 나라다. 그러나 전북팬들에게 브라질은 결코 먼 나라가 아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K리그를 주름잡던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유고연방, 러시아 등 동유럽 출신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유고 내전으로 인한 동유럽 국가의 경제적 몰락은 K리그에게 기회가 된 것이다.

전북 역시 창단 초기인 90년대 말에는 지금과 달리 舊 소련과 유고연방 출신의 외국인 선수 영입에 적극적이었다. 전북에서 4시즌 동안 22골을 기록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비탈리는 대표적인 동구권 출신의 외국인 선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브라질 선수들이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북은 브라질 커넥션의 중심이었다. 호제리오, 에드밀손(포르투갈과 브라질 이중국적)에 이어 마그노, 보띠, 제칼로까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구단들도 브라질 선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에닝요, 루이스, 레오나르도. 그리고 올 시즌 로페즈, 아드리아노, 티아고까지 브라질 커넥션이 이어지면서 전북팬들에게 브라질은 늘 가까운 나라다.

전북현대모터스 U-15 | 2018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레알 베티스에 2-1 역전승, 대회 우승!


사진_구단공식

한주간의 유소년팀 결과

08/06 전남 U-18 **0:0** 전북 U-18
08/19 전북 U-11 **3:2** 평택 J.S
08/19 레알 베티스 **1:2** 전북 U-15

K리그 주니어 2018 순위 (B조)

	팀	승	무	패	승점
1	울산 U-18	2	0	0	6
2	광주 U-18	1	0	1	3
3	대전 U-18	1	0	0	3
4	경북 U-18	1	0	0	3
5	대구 U-18	1	0	0	3
6	전남 U-18	0	1	0	1
7	**전북 U-18**	**0**	**1**	**1**	**1**
8	상주 U-18	0	0	2	0
9	아산 U-18	0	0	2	0
-	경남 U-18	0	0	0	0
-	부산 U-18	0	0	0	0

중등리그 2018순위 (전북권역)

	팀	승	무	패	승점
1	**전북 U-15**	**5**	**1**	**0**	**16**
2	전주해성중	5	1	1	16
3	완주중	3	2	1	11
4	고창북중	3	2	2	11
5	이평FC	3	1	2	10
6	이리동중	2	1	3	7
7	전주시민	2	0	4	6
8	신태인중	1	0	5	3
9	군산FC	0	0	6	0

초등리그 2018순위 (전북권역A)

	팀	승	무	패	승점
1	**전북 U-12**	**6**	**0**	**0**	**18**
2	구암초	4	1	1	13
3	정읍단풍	4	1	1	13
4	스포츠제이	3	0	3	9
5	전주시민	2	0	4	6
6	JKFC	1	0	5	3
7	봉동초	0	0	6	0

레알 베티스(스페인)에 2-1 역전승 거두고 대회 우승
U-11은 화랑대기 우승, '전북은 유스도 강하다' 입증

전북 U-15가 제주도에서 지난 챔피언십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전북 U-15(동대부속 금산중)은 19일 서귀포 강창학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제주국제유스대회' 결승에서 레알 베티스(스페인)에 2-1 역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서 전북은 2월 금석배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북은 전반 5분만에 중원에서 한번에 이어진 전진패스를 차단하지 못한 채 선취골을 허용하며 출발이 좋지 못했다.

레알 베티스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던 전북에게 기회가 된 것은 세트피스였다. 전반 14분 서민국이 올려준 코너킥을 김래우가 헤더로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동점골 이후 레알 베티스의 맹공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전북은 1-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서도 레알 베티스의 공세는 계속됐다. 그러나 김준홍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후반 중반 이후 측면을 활용한 패싱 축구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던 전북은 후반 30분 페널티킥을 나현규가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레알 베티스의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2-1 승리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로 지난해에는 루이스 피구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친정팀인 스포르팅(포르투갈)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화랑대기에 참가한 U-11은 연장 후반 극적인 결승골로 J.S 클럽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_구단공식

안대현 감독,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유럽과 남미팀을 상대로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U-15를 2018 제주국제유스대회 우승으로 이끈 안대현 감독은 "좋은 대회에 출전하게 도와준 구단과 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부상 선수들이 많은 와중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덕분이다."며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이번 대회에는 레알 베티스(스페인), 산투스(브라질) 등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해외 클럽들의 출전으로 국내 유소년팀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안대현 감독 역시 "우리 유소년팀의 경쟁력이 궁금해 이번 대회 출전을 요청했다."며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승을 통해 이 연령대에서는 유럽, 남미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도자와 선수 모두가 얻었다."며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로서 전북 U-15는 지난 금석배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안대현 감독은 "부상 중인 선수들이 많아 걱정이 많지만, 주말리그가 두 경기 남은 만큼, 선수단 운용을 잘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남은 시즌에 대한 목표를 전했다.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JBFC Hot News

jeonbuk1994 · 팔로우



♥ 1,398

**올 시즌 서울전 3전 전승
전북은 전북이다!**

#전북현대
#최보경 #취한다 #취보경
#손준호 #슈퍼골
#오오렐레 #힘을내라_전북

jeonbuk1994 · 팔로우



♥ 961

**이번 라운드 주인공은
나야 나! '티아고'**

#전북현대
#티아고 #MVP #No.11
#못넣으면_신욱이형이_뭐가돼
#티아고_넣어서_다행이고

jeonbuk1994 · 팔로우



♥ 825

**2018 시즌 로페즈 양말!
오늘만 오시는 분들만 GET!**

#lopes #전북현대
#최근강원전_9승1무
#머스트해브_아이템
#전북현대_외국인선수 #캐릭터양말

티아고, K리그1 22R MVP 선정



사진_구단공식

전반 5분 선제골 어시스트에 이어 후반 26분 프리킥골 1골 1도움 맹활약, 전북 데뷔 첫 라운드 MVP 선정

팬들이 선택한 티아고의 왼발이 드디어 터졌다.

티아고는 지난 11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22라운드 강원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1 완승을 이끌며 전북 입단 이후 처음으로 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강원전에 선발 출장한 티아고는 전반 5분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홍정호의 선제 헤딩골을 도우며 경기를 시작했다.

후반 26분에는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교체 아웃 예정이던 김신욱과 티아고는 교체 직전 얻어낸 프리킥 기회를 서로 처리하고 싶어했다. 이 때 팬들은 티아고의 이름을 연호했고, 김신욱은 웃음을 지으며 양보했다.

팬들의 선택은 적중했다. 보란 듯이 강원 수비벽 아래로 깔아차는 재치 있는 프리킥으로 승리에 쐐기를 박는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아쉬움 속에 벤치에 물러나 있던 김신욱은 티아고의 득점을 누구보다 반기며 '양보의 미덕'을 실천했다.

한편 이날 선제골의 주인공인 홍정호는 득점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득점 1위 제리치를 완전 봉쇄하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측면에서 강원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 최철순도 함께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티아고의 활약에 힘입어 강원에 3-1 승리를 거둔 전북은 지난 경남전 패배의 아픔을 씻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장수군의 날! 장수 오미자와 함께 더위 날린다.



사진_장수군

지자체와 상생하는 전북, 이번에는 장수군이다.

전북 현대는 대구전을 '장수군의 날'로 지정하고 장수군과 함께 팬들에게 장수군 특산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대구전에 입장하는 관중 선착순 3,000명에게 장수군의 특산품인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파우치를 증정한다. 오미자청, 사과즙, 토마토 등 시식도 가능하다.

한편 하프타임 이벤트에서는 장수군에서 제공한 사과즙과 오미자청이 경품으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NO	이 름 (NAME)
①	생년/월/일
②	신장/체중
③	전북입단연도
④	2018 K리그 기록

1	훙정남 (JUNGNAM)
①	1988/05/21
②	186cm/79kg
③	2007년
④	

2	이 용 (YONG)
①	1986/12/24
②	180cm/76kg
③	2017년
④	20경기 7도움

3	김민재 (MINJAE)
①	1996/11/15
②	188cm/78kg
③	2017년
④	13경기 1골

4	신형민 (HYUNGMIN)
①	1986/07/28
②	182cm/77kg
③	2014년
④	15경기

5	임선영 (SUNYOUNG)
①	1988/03/21
②	185cm/78kg
③	2018년
④	16경기 3골 2도움

6	최보경 (BOKYUNG)
①	1988/04/12
②	184cm/79kg
③	2014년
④	19경기 1골 1도움

7	한교원 (KYOWON)
①	1990/06/15
②	182cm/73kg
③	2014년
④	11경기 4골 2도움

8	정 혁 (HYUK)
①	1986/05/21
②	175cm/70kg
③	2013년
④	7경기 1골

9	김신욱 (SHINWOOK)
①	1988/04/14
②	197cm/97kg
③	2016년
④	20경기 8골 2도움

10	로페즈 (LOPES)
①	1990/10/28
②	184cm/78kg
③	2016년
④	20경기 6골 4도움

11	티아고 (TIAGO)
①	1993/01/12
②	180cm/72kg
③	2018년
④	16경기 2골 3도움

14	이승기 (SEUNGGI)
①	1988/06/02
②	177cm/67kg
③	2013년
④	16경기 1골 3도움

15	이재성 (JAESUNG)
①	1988/07/05
②	187cm/75kg
③	2017년
④	3경기

16	조성환 (SUNGHWAN)
①	1982/04/09
②	184cm/78kg
③	2010년
④	2경기

18	나성은 (SUNGEUN)
①	1996/04/06
②	174cm/63kg
③	2018년
④	2경기

19	박원재 (WONJAE)
①	1984/05/28
②	175cm/69kg
③	2010년
④	5경기

20	이동국 (DONGGOOK)
①	1979/04/29
②	187cm/83kg
③	2009년
④	22경기 7골 3도움

21	황병근 (BYEONGGEUN)
①	1994/06/14
②	193cm/93kg
③	2015년
④	5경기

22	김진수 (JINSOO)
①	1992/06/13
②	177cm/69kg
③	2017년
④	3경기

23	윤지혁 (JIHYEOK)
①	1998/02/07
②	190cm/85kg
③	2018년
④	

25	최철순 (CHULSOON)
①	1987/02/08
②	173cm/70kg
③	2006년
④	18경기

26	홍정호 (JEONGHO)
①	1989/08/12
②	186cm/77kg
③	2018년
④	16경기 1골

27	유승민 (SEUNGMIN)
①	1998/09/24
②	181cm/70kg
③	2017년
④	

28	손준호 (JUNHO)
①	1992/05/12
②	178cm/62kg
③	2018년
④	18경기 2골 2도움

30	정호영 (HOYEOUNG)
①	1997/01/16
②	180cm/70kg
③	2018년
④	1경기

31	송범근 (BUMKEUN)
①	1997/10/15
②	194cm/88kg
③	2018년
④	19경기

32	아드리아노 (ADRIANO)
①	1987/09/28
②	172cm/68kg
③	2018년
④	19경기 6골 2도움

33	박원재 (WONJAE)
①	1994/05/07
②	175cm/70kg
③	2017년
④	

34	장윤호 (YUNHO)
①	1996/08/25
②	178cm/68kg
③	2015년
④	4경기

35	명준재 (JUNJAE)
①	1994/07/02
②	178cm/68kg
③	2016년
④	2경기

38	박정호 (JUNGHO)
①	1997/02/18
②	183cm/75kg
③	2016년
④	1경기

41	이재형 (JAEHYEONG)
①	1998/04/05
②	190cm/85kg
③	2017년
④	

K리그1 2018 득점 순위

	선수	소속	득점	경기
1	제리치	강원	22	24
2	말컹	경남	21	22
3	주니오	울산	11	18
4	무고사	인천	11	22
5	데얀	수원	10	21
6	문선민	인천	9	23
7	**김신욱**	**전북**	**8**	**20**
8	바그닝요	수원	7	17
9	**이동국**	**전북**	**7**	**22**
10	**아드리아노**	**전북**	**6**	**19**
11	**로페즈**	**전북**	**6**	**20**
12	마그노	제주	6	21

K리그1 2018 도움 순위

	선수	소속	도움	경기
1	**이용**	**전북**	**7**	**20**
2	아길라르	인천	7	22
3	세징야	대구	6	14
4	홍철	상주	5	21
5	네게바	경남	5	22
6	이창민	제주	4	19
6	**로페즈**	**전북**	**4**	**20**
8	이근호	울산	4	21
9	권순형	제주	4	21
10	김태환	상주	4	21
11	채프만	포항	4	21
12	염기훈	수원	4	22

K리그1 2018 공격포인트 순위

	선수	소속	기록	경기
1	말컹	경남	25	22
1	제리치	강원	25	24
3	무고사	인천	13	22
4	주니오	울산	12	18
4	문선민	인천	12	23
6	데얀	수원	11	21
7	**김신욱**	**전북**	**10**	**20**
7	**로페즈**	**전북**	**10**	**20**
7	디에고	강원	10	22
7	**이동국**	**전북**	**10**	**22**
7	안델손	서울	10	23
12	고요한	서울	9	21

K리그1 2018 무실점 순위

	선수	소속	기록	경기
1	**송범근**	**전북**	**14**	**19**
2	손정현	경남	9	20
2	이창근	제주	9	22
4	강현무	포항	7	24
4	양한빈	서울	7	24
6	유상훈	상주	5	13
6	이범영	강원	5	17
8	신화용	수원	4	10
9	노동건	수원	3	14
9	오승훈	울산	3	11
9	조수혁	울산	3	4
12	이범수	경남	2	4

PUB



HYUNDAI

bluehands
차량 관리 서비스는 블루핸즈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수리/정기점검/긴급출동/홈투홈/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4터보(17/18") 복합13.1km/ℓ(도심: 11.9km/ℓ, 고속도로:14.8km/ℓ) l CO2배출량: 127g/km l 배기량: 1,353cc l 공차중량: 1,285kg l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6터보(18"/7DCT/올 시즌 타이어) 복합12.6km/ℓ(도심: 11.3km/ℓ, 고속도로:14.5km/ℓ) l CO2배출량: 132g/km l 배기량: 1,591cc l 공차중량: 1,300kg l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1.6터보(18"/7DCT/썸머 타이어) 복합12.4km/ℓ(도심: 11.1km/ℓ, 고속도로:14.2km/ℓ) l CO2배출량: 134g/km l 배기량: 1,591cc l 공차중량: 1,300kg l 7단 DC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 1.6터보(18"/6MT/올 시즌 타이어) 복합12.6km/ℓ(도심: 11.4km/ℓ, 고속도로:14.3km/ℓ) l CO2배출량: 132g/km l 배기량: 1,591cc l 공차중량: 1,270kg l 6MT(3등급) ▶ 벨로스터 가솔린 1.6터보(18"/6MT/썸머 타이어) 복합12.4km/ℓ(도심: 11.2km/ℓ, 고속도로:14.0km/ℓ) l CO2배출량: 134g/km l 배기량: 1,591cc l 공차중량: 1,270kg l 6MT(3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시스템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